

관과 사람이 하나 되는 길 4대강 발원지에서 뛰우는 편지

흐르고 흘러 만생명을 기르는 국토의 젖줄

보살님, 4대강 보살님. 지금 대한민국은 '4대강 개발'을 두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개발논리와 반대논리가 밀어붙이려는 세력과 저지하려는 세력으로 패를 나눴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당리당락이 정쟁으로 번져 있습니다. 이 땅의 새 생명을 기르는 젖줄로서 그 흐름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보살님의 깊고 유장한 품에 삼을 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갈등, 그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의 정수리 그 그윽한 발원(發源)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경인년 새 아침 4대강 보살님 심기령 하오며...

한강 발원지에서 일체법의 순환을 생각하다



정암사 보궁에 삼배올리고 겨울바람에 깨져 나가는 수마노탑 풍경소리의 영롱한 빛살에 몸을 기댈습니다. 함백산 드넓은 고갯마루에서 아스라이 조망되는 대간의 물결들, 너울대는 산자락들을 눈으로 어루만지니 감격은 차라리 서글픔으로 복받쳐 올랐습니다.

나를 길렀던 처음의 물, 어머니의 태속에서 헤엄치던 그 물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1억 50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석회암 동굴 검룡소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서 첫숨을 터드리듯 솟구쳐 오른 물들이 무한의 생명력을 머금고 개천으로 흐르다가 또 다른 개천을 만나 냇물이 되고 냇물로 흐르다가 또 다른 냇물을 만나며 넓어지고 깊이를 더해 강줄기를 만듭니다. 강줄기는 다시 수없는 개천과 냇물을 끌어안으며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태백 시내를 예뻐 17Km를 달려가 마추치는 검룡소. 곧게 뻗은 낙엽송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며 자꾸만 머리카락이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해 바다의 이무기가 웅이 되고자 한강을 타고 올라와 섬으로 들어갔다는 전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무기의 몸처럼 구불구불한 개울을 따라 오르는 동안 발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물과 일에는 그 근원이 있고 구도자에게는 초발심이 있습니다. 처음이 왜곡된 일에 끝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설법을 할 때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낙기실자기수(落基實者基樹) 음기류자기원(飲基流者基源) 과일을 먹으며 그 나무를 생각하고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

중국 남북조시대 북주의 유신(庾信 513-581)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도 물 한 모금의 근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도 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근원을 생각하는 숙연함이 아발로 인간세상을 정토로 만드는 근원일 것입니다. 하루 2000톤의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검룡소. 겨울 나무들이 빼곡하게 투영되어 또 하나의 숲을 이룬 샘을 들여다보며 알뜰모로 풍당 빠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들입니다. 양평군으로 들어서면서 흑천(黑川)과 만나 서쪽으로 유로를 돌려 북한강과의 합류점인 두물머리에 이르고 서울의 25개 교량 아래를 흘러 임진강을 만나 조강(漕江)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를 끼고 서해로 흘러들어 5대양에 몸을 풀어 넣습니다. 이토록 유장한 흐름의 끝이 어찌 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흐름에는 끝이 없습니다. 흐름 그 자체가 흐르고 흐를 뿐입니다.

보살님, 흐름을 멈추려 하고 흐름을 바꾸려 하고 흐름을 강제하려는 발상을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대강 개발'을 앞두고 입장과 입장, 세력과 세력이 대립하는 이유를 일체법이 순환하고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강에 의존해 온 역사는 길어도 강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거기 깃든 생명을 내친 적은 없습니다.

강은 여여하게 흐르고 무량하게 베풀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심은 한 순간도 여여하지 못하고 베풀기보다는 쟁취하는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을 염려하지 않는 오만함이 날카로운 삽자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백의 정기에 솟아 민족의 젖줄 한강을 발원하다.' 검룡소 앞에 놓인 돌에 새겨진 이 문장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니 한강의 온 몸이 한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서해의 이무기가 거슬러 올라간 자국일까? 검룡소에서 솟은 물이 돌에 깊은 길을 내며 1000리 여정을 떠내고 있다.

낙동강 발원지에서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다



황지(黃池)는 태백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늑한 공원이 있습니다. 반도의 중턱에서 남쪽 바다로 이어지는 물길 이 시작되는 곳이 시민의 휴식공간이란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낙동강 1300리 예서부터 시작되다'

커다란 화강암에 시원스럽게 새겨진 선언에서 깊은 강심(江心)의 울림을 느낍니다.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날리던 '치너멧 사공'의 애잔한 곡조도 떠오릅니다. 길이 506.17Km의 낙동강. 남한에서는 가장 큰 강입니다. 함백산의 정기를 알알이 머금고 채 황지에서 솟구쳐 흐르는 물줄기는 봉화 영주 안동으로 흐르며 수많은 지류들을 제 몸으로 만들어 서쪽으로 비스듬한 물길을 이룹니다. 상주에 이르기 전 내성천(內城川)과 영강(嶺江) 등의 지류들을 옆구리에 끼면서 몸집이 불어나고 흐름을 남쪽으로 관주세웁니다.

그러하여 상주 남쪽 아래서 위천(渭川)을 선산 부근에서 감천(甘泉)을 받아들이고 대구 부근에서 금호강을 남지부근에서 남강을 합치며 길을 동으로 돌려 삼랑진 부근에서 밀양강을 만납니다.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남해로 들어갑니다.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에 푸른 돌이 들 것 같은 황지. 그 맑은 속에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건물과 하늘만 들어 찬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 오는 전설도 담겨 있습니다. 1991년 7월 황지라이온스클럽이 세운 빗물에 새겨진 '황지 못의 전설'을 읽습니다.

황지3동 시가 중심부에 위치하여 둘레가 100m인 상지(上池)와 50m인 중지 30m인 하지로 된 3개의 못으로 이루어졌다. 상지 남쪽에 깊이를 질 수 없는 수굴(水窟)이 있어 수원이 된다. 수량은 가뭄에도 장마에도 변함없는 1일 약 5000톤이 응축되며 수온 또한 상온 15도를 유지하는 해발 700m의 이 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취수장으로 전국 최적의 오염되지 않은 상수원이다. (중략)

전설에 의하면 이곳은 원래 황씨(黃氏)성을 가진 황씨의 옛 터로서 주인 황씨는 많은 재산에 풍족하게 살았으나 돈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전노 노랭이었다. 어느 봄날 황부자는 외양간에서 쇠똥을 쳐내고 있었는데 웃자람이 남무한 노승이 시주를 청했다. 황부자는 시주하기를 거절했으나 노승은 물러나지 않고 거듭 염불을 외며 시주를 청했다. 이에 그만 화가치면 황부자는 쇠똥을 한 가래 퍼서 시주바탕에 넣어주며 "이거나 받아기라" 하였다.

노승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공손히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마침 아기를 업고 방이를 짚던 며느리가 이를 보고 부끄러이 여겨 시아버지 몰래 자기가 짚은 쌀 한 바가지를 퍼내어 노승에게 시주해 올리며 시아버지의 죄를 용서 빌었으나 노승이 며느리에게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사

주지 정호
신도회 일동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 1
TEL 02)379-2996 FAX 02)391-9975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72-11번지
TEL 031)357-3916, 2695 FAX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진산 중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법륜사

주지 법륜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0-38호
TEL 018-382-3448

호명산 감로사·승가사

본사 발전을 위하여 이계주신 제방에 스님과 신도발자여려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승가사는 뉴타운 재개발로 인하여 부득이 종암 큰스님께서 창건하고 황중생연·육신동공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4(청평검문소에서 우측 4km 우무내길)로 이전 합병하고 중랑구 면목동 1092-2 나눔에 서울중우원(조교원)설지(영마신길 농협 홈플러스 옆 건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지 지산 지성 합장
■ 승가사 02)2292-3418 전승 2282-3418
■ 감로사 031)584-0117 전승 585-5747
■ 핸드폰 010-3722-3418 이메일 k3418@naver.com

2010년 진관사 開山千卅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 코끼리유치원·진관우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재단법인 선학원 관음사

주지도기
신도일동

관음유치원·교포교·재소자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TEL 054)633-1138

대한불교조계종 흑응산 연방사

주지 일봉
신도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TEL 054)654-2464

대한불교조계종 능하사

주지 성련
신도일동

■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95호(4층)
TEL 02)701-7488

한국불교태고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